

미사일 도발에 멀어지는 남북평화… 文 “北 도발 대응 아냐”

남북 평화 프로세스 추진 차질 우려
文 “북한 도발에 확실한 억제력”
김여정 부부장 “부적절한 실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구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통신연락선 두절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인 올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열리는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할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국제사회의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냉전기에 접어든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했다. 미국과 협상으로 ‘대화국면’ 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직접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 교환을 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했다.

올해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친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게 대표적인 관계 복원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지지를 당부했다. 지난 1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한 문 대통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과의 관계

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위해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구가 이뤄지도록 견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북한과 관계 개선’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한국군의 첫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남북관계 파국을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진 SLBM 시험 발사 성공과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된 것”이라면서도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한 데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실언”이라며 “자기들의 유사 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장차 북남 관계발전을 놓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에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청와대는 16일 김 부부장의 ‘남북관계 파괴’ 경고에 대해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추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보위를 위한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여정 담화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향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원 배가 우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대표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상계동 투자한게 얼마데”… 종로 출마론 반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러닝메이트적 성격 후보 많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 때 ‘이준석 출마론’이 나오는데 “제가 상계동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종로에 가겠습니까”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가도 충분히 러닝메이트적 성격의 후보는 많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2년 정계 입문 후 총선에서 노원병 지역구에서만 세 번 출마했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출마했지만 당선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표는 “(내년 종로 보궐선거에) 희한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할 것”이라며 “그분들의 욕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민

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은 전날(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현재 내년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국민의힘·윤희숙), 충북 청주 상당(민주당·정정순) 총 3곳이 됐다.

이준석 대표는 또한 이날 방송에서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의 판세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서울 지역은 갈수록 서울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가 빠지는 것이 대부분 젊은 세대가 자기 주택을 마련하려고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면서 빠지는 것”이라며 “서울에 단순히 표심 구도는 2012년보다 저희에게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경기도는 확실히 저희가 봤을 때 과거보다 표가 안 나오는 상황이며 작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해체

실무진 위주 캠프로 재편… ‘혁신’ 도전

“기성 정치인에 많이 의존하게 돼”
상황실장 등 본부장급 인사 떠나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해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위해서라는 게 캠프 측 관계자 설명이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한자리대에 머물면서 최 전 원장이 변화를 통한 혁신에 도전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최 전 원장이 ‘캠프 해체’ 선언을 한 것은 당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하루 앞둔 14일 밤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에 들어오고 전격적으로 입당하고 출마선언 하면서 정치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와 혹독한 신고식을 거쳤다. 주변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시간부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한다. 홀로 서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의 ‘캠프 해체’ 선언 이후 김영우 상황실장, 김선동·우창록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 등 본부장급 인사들은 떠났다. 박대출 전략총괄본부장, 조해진 기획총괄본부장도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과 교육위원회장에 선출된 이후 외곽 지원하는 상황이다. 다만 실무진 가운데 캠프를 떠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전 상황실장은 16일 SNS에 올린 글에서 “최재형다음의 실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0일 강원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가 진짜로 무언지, 있다면 그게 실제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침해돼 가고 있는지, 열린 토론과 냉정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겠다”며 캠프에서 떠난 심경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6일 캠프 해체 선언 후 맞는 첫 ‘상속세 폐지’ 공약 발표에서 “이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좀 더 귀 기울이고 국민 가슴에 와닿는 것을 들어야겠다”는 걸로 새로운 출발 하려고 한다”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과 대선 출마 선언 후 지지율이 오르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안’으로 인식된 최 전 원장은 최근 급격한 추락을 겪었다. 아시아 경제의뢰로 원지코리아가 지난 11~12일에 실시한 범보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최 전 원장 지지율은 2.2%였다. 직전 조사에서 6.4%를 기록했는데, 4.2%포인트가 떨어진 것. 최 전 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6%), 원희룡 전 제주지사(3.2%),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2.6%) 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캠프를 떠난 한 관계자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최 전 원장께서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 아닌데, 낮은 공간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적응을 넘어 과거랑 달라진 캠페인 방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이 기존 정권에서 조직 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결집이 돼서 캠페인을 주도하는 열린 캠프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캠프는) 후보가 내세운 3S 전략(small 작고, smart 영리하고, servant 섬기는)으로 실무진 중심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 “지지자들도 반응이 나쁘지 않다”며 “오늘 토론회가 있으니 일단 오늘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지코리아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